

#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Couple's Interaction Pattern of the Conflict-Coping Method as Perceived by the Husband and Wif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이 선 미  
교 수 전 귀 연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 Lee, Sun Mi

*Professor* : Jeon, Gwee-Ye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investigate how the conflict-coping methods of husbands and wives relate to their cognition of their own conflict-coping methods and those of their spouse and secondly to investigate how the interaction patterns of the conflict-coping methods between husbands and wives affect their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indicated that both husbands and wives recognized that they themselves use the more reasonable conflict-coping method than their spouse. Both thought that husbands use the more avoidant, conflict-coping method than wives.

Secondly, the study showed that both husbands and wives are tend to use the same conflict-coping method as their spouse's conflict-coping method as perceived by them. All the conflict-coping methods of

---

Corresponding Author: Gwee-Yeon Jeo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 Dong Puk-ku T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0 Fax: 82-53-950-6209  
Email: gyjeon@mail.knu.ac.kr

husbands were related to their perception of their wives' conflict-coping methods. In the case of wiv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ir aggressive conflict-coping method and the husbands' avoidant conflict-coping method, or between their avoidant conflict-coping method and the husbands' reasonable conflict-coping method. These results indicated a gender-difference in the conflict-coping methods between husbands and wives.

Thirdly, the study showed that when husbands and wives regarded the interaction pattern of the conflict-coping method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spouse as the reasonable+reasonable pattern, both of them had the highest marital satisfaction. When husbands regarded the interaction pattern of the conflict-coping method as the aggressive+aggressive pattern, they had the lowest marital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when wives regarded the interaction pattern of the conflict-coping method as the aggressive+avoidant pattern, they had the lowest marital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결혼초기(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갈등대처방식(the conflict-coping method), 상호작용패턴(the interaction pattern), 결혼만족도(the marital satisfaction)

## 1. 서론

부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맺어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비혈연적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이다. 그러나 부부는 환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남녀의 결합이므로 결혼생활에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 해결 능력이 없을 때나 극도의 긴장상태에 달했을 때는 이혼으로서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최근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현상이 갈수록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3년 이혼건수는 5만9300건, 연간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3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이혼건수는 16만 7100건, 조이혼율은 3.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율은 30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03).

그러나 여러 학자들(송말희, 1990; Gottman, 1992; Natarus & Markman, 1993; Straus, 1979)은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 심화의 원인을 부부간의 상이성이나 갈등의 존재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들이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부가 그들의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즉 부부의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이 건설적이나, 파괴적이냐에 따라서 부부갈등의 심화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긍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을 발달시킴으로써 관계의 회복 및 친밀감 증진과 함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초기는 성장배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상호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대처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형성된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은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결혼생활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모든 가족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 부부를 연구하는 영역에서 부부의 정서적 표현과 행동적 상호작용, 그리고 결혼에서의 만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부부의 인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Fincham, Bradbury, &

Scott, 1990), 특히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는 부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행동 역시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갈등대처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역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갈등대처방식을 다룬 연구들(권오실, 1995; 송말희, 1990; 이미영, 박혜인, 1995; 이현주, 1997; 최혜경, 노치영, 1994)은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을 알아보는데 그쳤으며,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김은신, 1992; 손정숙, 1999; 이정은, 이영호, 2000; 조유리, 김경신, 2000; 최구련, 1995; Hindman, 2002) 또한 남편과 아내 각자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 정도와 차이 그리고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고헌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에서는 신혼기의 부부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과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을 연합하는 방식으로 살펴 보았을 뿐,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른 부부의 상호작용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시 남편과 아내가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부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상호관련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결혼만

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갈등대처방식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송말희, 1990; Gottman, 1992; Natarius & Markman, 1993; Straus, 1979)은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 심화의 원인을 부부간의 상호성이거나 갈등의 존재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들이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Gottman(1992)은 만일 문제해결을 위한 감정이입이나 비방어적인 적극적 경청, 그리고 동의와 승인을 향한 유머감각이 있다면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갈등 그 자체가 결코 결혼을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잘못 다루어진 부부갈등은 부부결합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배우자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Miller, Dopp, Myers, Stevens, & Fahey, 1999), 그들 부모의 갈등에 노출된 자녀들의 행동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tzman, 2000). 그러나 잘 다루어진 부부갈등은 그러한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패턴의 발달과 결혼 안정성 및 결혼 만족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타협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오히려 관계내의 성장을 조장할 수 있고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Gottman & Krokoff, 1989). 이처럼 갈등시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이 어떠한가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용어의 사용과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Hindman(2002)은 갈등관리접근을 적극적(Active/Engaging), 순응적(Accommodating), 회피적(Avoidant) 갈등관리접근으로 분류하였으며, Carver와 Scheier(1994)는 부부간의 적응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기준과 문제에 대해 접근적인지 회피적인지로 갈등시의 대처방식을 설명하였다. Rusbult와 Johnson, 그리고 Morrow(1986)는 부부가

갈등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소극적인지와 부부관계의 유지에 대해 건설적/파괴적인지를 기준으로 갈등해결전략을 표현형(Voice), 탈출형(Exit), 순종형(Loyalty), 무시형(Neglect)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유리와 김경신(2000)은 갈등대처행동을 이성적대처, 외부도움요청, 회피,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현주(1997)는 갈등대처방식을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대처, 회피, 행동표출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권오실(1995)은 이성적대처, 외부도움요청, 감정표현, 회피, 순응 및 체념, 기본전환, 의견강요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고현선과 지금수(1995)는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대처유형을 양보형, 소극적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으로,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대처유형을 이성형, 소극적형, 유아형, 공격형, 변덕형으로 명명하였고, 최혜경과 노치영(1994)은 우리나라 기혼남성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유형을 권위적, 이성적, 수동적, 부정적 문제해결행동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혼여성들은 적극적, 방어적, 수동적, 다양한 문제해결행동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을 개인이 어떤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방식이라고 정의하고, 갈등대처방식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타협하거나 혹은 친구나 친척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성형,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공격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참거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회피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권오실(1995)의 연구에서 남편의 경우 이성적대처, 기본전환, 회피, 감정표현, 의견강요, 순응 및 체념, 외부도움요청의 순으로, 아내의 경우 이성적대처, 감정표현, 기본전환, 의견강요, 외부도움요청, 회피, 순응 및 체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현주(1997)와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도 역시 남편과 아내 모두 이성적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편은 아내보다 행동표출(이현주, 1997; 최규련, 1994), 이성적대처와 회피, 아내는 남편보다 외부도움요청과 감정표현, 기본전환, 의견강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실, 1995). 또한 남편은 문제해결 방안모색을, 아내는 구체적 행동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이미영, 박혜인, 1995), 문제해결 유형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무시형이 많았고, 아내는 남편보다 표현형, 순종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원하고 갈등시 후퇴적이며, 아내는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친밀성을 원하고 갈등시 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usbult et al., 1986). 남편은 아내가 갈등시에 소극적이거나 외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공격형이거나 비난형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난형의 경우는 아내에게서만 나타나서 아내가 남편보다 갈등시에 더 언어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다(고현선, 지금수, 199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용어의 사용과 분류 방법이 다양하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을 분석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부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상호관련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서의 상호작용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평가로 만들어지는 배우자와 자신에 대한 인지적 귀인과 관련된다는 것이 발견되어 왔다(Bouchard, Lussier, Wright, & Richer, 1998; Fincham & Bradbury, 1987). Hindman(2002)은

부부 사이의 갈등관리접근에 대한 배우자의 접근과 부부의 적응에 대해 연구하였고, Fincham과 Harold, 그리고 Gano Phillips(2000)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지와 귀인 요인을 탐구했다. 그들은 배우자가 그들의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 자신과 파트너에 대해 형성하는 귀인과 파트너의 갈등에 대한 접근의 영향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때 갈등대처정도와 결혼만족도가 모두 낮았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느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Lefcourt, Holmes, Ware, & Saleh, 1986).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Heavey와 Layne, 그리고 Christensen(1993)은 남편이 요구형이고 아내가 후퇴형인 것이 그 반대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Kurdek(1995)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집단에서 아내는 대결형을, 남편은 후퇴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Gottman과 Krokoff(1989)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은 갈등정도가 낮은 상황의 대화에서, 아내는 갈등정도가 높은 상황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였으나,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최규련(1995)은 반응적 대처방안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이 감소되고, 적극적 대처방안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부인의 경우 외부도움요청을 대처방안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회피와 행동표출적 대처방안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에서 남편이 이성형일 때 부인의 유형과 관련없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부 모두 요구형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이 양보형인 경우가 외면형일 때보다, 또 외면

형일 때가 공격형이거나 비난형인 경우보다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이 이성형인 경우에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변덕형일 때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갈등대처방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시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무엇인지를 밝혀 남편과 아내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총 13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 1) 갈등대처방식 척도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주(1997), 권오실(1995)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 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 이성형, 공격형, 회피형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배경변인	구 분	남 편		아 내		배경변인	구 분	남편 아내	
		N (%)	N (%)	N (%)	N (%)			N (%)	
연 령	21 - 25	2 ( 1.5)	7 ( 5.3)	결혼지속 기 간	1년미만	27 (20.5)			
	26 - 30	42 (31.8)	86 (65.2)		1 - 2년미만	25 (18.9)			
	31 - 35	70 (53.0)	35 (26.5)		2 - 3년미만	22 (16.7)			
	36 - 40	17 (12.9)	4 ( 3.0)		3 - 4년미만	19 (14.4)			
	무응답	1 ( 0.8)	0		4 - 5년미만	13 ( 9.8)			
종 교	기독교	25 (18.9)	35 (26.5)	결혼형태	5 - 6년미만	26 (19.7)			
	천주교	10 ( 7.6)	13 ( 9.8)		연애형	91 (68.9)			
	불교	33 (25.0)	34 (25.8)		중매형	17 (12.9)			
	종교없음	63 (47.7)	49 (37.1)		절충형	24 (18.2)			
	무응답	1 ( 0.8)	1 (0.8)		없음	40 (30.3)			
학 령	고등학교졸업	15 (11.4)	32 (24.2)	자녀수	1명	62 (47.0)			
	대학교졸업	100 (75.8)	88 (66.7)		2명	28 (21.2)			
	대학원이상	16 (12.1)	12 ( 9.1)		3명	2 ( 1.5)			
	무응답	1 ( 0.8)	0	시부모 동거여부	동거	14 (10.6)			
	전업주부	0	65 (49.2)		비동거	118 (89.4)			
직 업	전문직	31 (23.5)	33 (25.0)	친정부모 동거여부	동거	5 ( 3.8)			
	관리직	12 ( 9.1)	3 ( 2.3)		비동거	127 (96.2)			
	사무직	57 (43.2)	18 (13.6)	월평균 수입	100만원이하	11 ( 8.3)			
	서비스직	6 ( 4.5)	2 ( 1.5)		101 - 200만원	66 (50.0)			
	판매직	6 ( 4.5)	2 ( 1.5)		201 - 300만원	31 (23.5)			
	생산직	12 ( 9.1)	0		301 - 400만원	12 ( 9.1)			
	농어민종사자	2 ( 1.5)	0		401 - 500만원	5 ( 3.8)			
	학생	3 ( 2.3)	7 ( 5.3)		500만원이상	3 ( 2.3)			
	무직	0	0		무응답	4 ( 3.0)			
	무응답	3 ( 2.3)	2 ( 1.5)						

〈표 2〉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하위척도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문 항 수	설명량(%)	Cronbach $\alpha$	문 항 수	설명량(%)	Cronbach $\alpha$
이 성 형	12	25.839	.8721	10	15.413	.8655
공 격 형	11	13.289	.8984	11	28.275	.9458
회 피 형	8	9.536	.8044	8	12.357	.8030

〈표 3〉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하위척도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문 항 수	설명량(%)	Cronbach $\alpha$	문 항 수	설명량(%)	Cronbach $\alpha$
이 성 형	13	12.992	.8933	13	14.075	.9009
공 격 형	11	28.272	.9008	11	29.489	.9466
회 피 형	9	10.147	.8328	9	11.954	.8343

에서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총 31문항,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남

<표 4>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하위척도	남편			아내		
	문항수	설명량(%)	Cronbach $\alpha$	문항수	설명량(%)	Cronbach $\alpha$
결혼만족도	3	90.654	.9484	3	90.758	.9491

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척도와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각각 총 33문항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방식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갈등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결혼만족도 척도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과 그의 동료들(1986)이 개발한 KMSS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4>와 같다.

KMSS는 7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자료의 수집절차

본 연구는 2000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대구와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초기 6년 미만의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결혼지속년수를 고려하여 사회교육원, 어린이집, 교회 등의 기관 및 연구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직접 간접으로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총 720부(36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80부(240쌍)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남편 혹은 아내의 부실기재 및 대상외 질문지의 경우는 그 부부(남편과 아내)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총 264부(132쌍)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구

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후,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Scheffé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에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성형( $t=3.801, p=.000$ )과 회피형( $t=6.828, p=.000$ )의 갈등대처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표 5〉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

변 인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이 성 형	3.46	.58	3.28	.62	3.801***
공 격 형	1.43	.47	1.42	.50	.280
회 피 형	2.42	.64	1.95	.63	6.828***

\*p&lt;.05 \*\*p&lt;.01 \*\*\*p&lt;.001

〈표 6〉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

변 인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이 성 형	3.59	.61	3.19	.70	6.294***
공 격 형	1.61	.70	1.59	.72	.338
회 피 형	2.12	.64	2.44	.74	-4.459***

\*p&lt;.05 \*\*p&lt;.01 \*\*\*p&lt;.001

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남편의 경우 부부갈등시 자신이 아내보다 이성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성형( $t=6.294$ ,  $p=.000$ )과 회피형( $t=-4.459$ ,  $p=.000$ )의 갈등대처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아내의 경우 부부갈등시 자신이 남편보다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적게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이 배우자보다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배우자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배우자가 표현하는 긍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간과하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긍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고 악화시키

는 또다른 요인일 수 있다. 즉, 자신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데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고 인지함으로써 배우자를 비난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부갈등시 자신과 배우자의 태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배우자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남편은 자신이 아내보다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고, 아내 역시 남편이 자신보다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아내보다 회피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권오실(1995)의 연구결과와 남편은 갈등시 후퇴적이라는 Rusbult와 그의 동료들(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남편의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은 자신과 배우자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최규련, 1995; Heavey et al., 1993; Kurdek, 1995) 갈등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폭력에 관한 김득성, 김정옥 그리고 송정아(2000)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행하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및 상해에 대한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 그리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남성들의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현주(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가 폭력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부부가 심각한 갈등상황에 있지 않으며, 높은 학력수준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관계**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부관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태

도나 행동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즉, 배우자가 긍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부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신의 갈등대처방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하고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 역시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편의 모든 갈등대처방식은 남편이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은 남편이 아내가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정적으로, 공격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공격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은 남편이 아내가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부적으로, 공격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경우 아내가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공격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적게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내가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적게 사용하고 공격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공격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

<표 7>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상관관계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이성형	공격형	회피형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이성형	.612***	-.256**	-.194*
	공격형	-.305***	.460***	.212*
	회피형	-.188*	.298**	.254**

\*p<.05 \*\*p<.01 \*\*\*p<.001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에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내의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은 아내가 남편이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정적으로,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은 아내가 남편이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부적으로,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내의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은 아내가 남편이 공격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경우 남편이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적게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남편이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적게 사용하고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편이 공격형과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 남편과는 달리 자신의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의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의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이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아내의 경우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에 반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 두가지 갈등대처방식에 대해 차별적인 구별을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에서 갈등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갈등대처유형이 부인의 경우 양보형이고 남편의 경우 이성형이었으며, 남편이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을 양보형으로 인지할 때 부인과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내는 남편에 비해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데 더 익숙하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에게 순종과 양보와 이해를 미덕으로 요구하고 교육하는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부갈등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은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과 동일한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8〉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의 상관관계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이성형	공격형	회피형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이성형	.392***	-.173*	.075
	공격형	-.299***	.514***	.158
	회피형	-.151	.297**	.320***

\*p<.05 \*\*p<.01 \*\*\*p<.001

3.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패턴에 따른 결혼만족도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을 밝히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그리고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을 조합하여 각각 이성형\*이성형, 이성형\*공격형, 이성형\*회피형, 공격형\*이성형, 공격형\*공격형, 공격형\*회피형, 회피형\*이성형, 회피형\*공격형, 회피형\*회피형의 9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눈 9가지 집단 중 케이스 수가 1이나 2인 집단은

제거한 후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Scheffé를 사용하였다.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에서 남편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

<표 9> 남편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		남편의 결혼만족도		
남편 * 남편이 인지한 아내	N	평균	F	Scheffé
이성형 * 이성형	34	6.35	5.947***	A
이성형 * 회피형	9	5.81		AB
공격형 * 이성형	36	5.83		AC
공격형 * 공격형	9	4.52		B
공격형 * 회피형	10	5.77		AB
회피형 * 이성형	20	5.85		AD
회피형 * 회피형	11	5.21		BCD

\*p<.05 \*\*p<.01 \*\*\*p<.001

<표 10> 아내와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		아내의 결혼만족도		
아내 * 아내가 인지한 남편	N	평균	F	Scheffé
이성형 * 이성형	29	6.30	5.700***	A
이성형 * 회피형	16	5.50		AB
공격형 * 이성형	4	6.08		AB
공격형 * 공격형	6	4.17		B
공격형 * 회피형	6	3.78		B
회피형 * 이성형	26	5.54		AB
회피형 * 공격형	10	5.27		AB
회피형 * 회피형	34	5.13		B

\*p<.05 \*\*p<.01 \*\*\*p<.001

〈표 11〉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아내의 결혼만족도 사이의 차이

변 인	남 편		아 내		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결혼만족도	5.80	1.01	5.44	1.29	3.811***

\*p&lt;.05 \*\*p&lt;.01 \*\*\*p&lt;.001

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편의 경우 자신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을 이성형\*이성형으로 인지한 집단과 공격형\*공격형, 회피형\*회피형으로 인지한 집단 간에 결혼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은 자신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을 이성형\*이성형으로 인지할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관계없이 아내가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공격형\*공격형일 때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모두 요구형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0〉에서 아내와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내의 경우 자신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을 이성형\*이성형으로 인지한 집단과 공격형\*공격형, 공격형\*회피형, 회피형\*회피형으로 인지한 집단 간에 결혼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이성형\*이성형인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서처럼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상관없이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을 이성형으로 인지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내는 남편과는 달리 자신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공격형\*공격형인 경우에 비해 오히려 공격형\*회피형일 때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갈등시 부인이 요구형인 경우보다 남편이 요구형인 경우 결혼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Heavey와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권력관계에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순종적이고 여성적인 것을 기대하는 반면에 아내의 경우 자신에 비해 남편이 무능하고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고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 더 불만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t=3.811, p=.000$ )가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아내보다 그들의 결혼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초기 6년 미만의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시 남편과 아내가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른 부부의 상호작용 및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이 배우자보다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아내보다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고 악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시 자신과 배우자의 태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배우자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남편의 모든 갈등대처방식은 남편이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 남편과는 달리 자신의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의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 또한 자신의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의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 성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이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아내의 경우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에 반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남편에 비해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데 더 익숙하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부부갈등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은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과 동일한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을 이성형\*이성형으로 인지할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공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

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관계 없이 아내가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공격형\*공격형일 때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는 자신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공격형\*회피형일 때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권력관계에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순종적이고 여성적인 것을 기대하는 반면에 아내의 경우 자신에 비해 남편이 무능하고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고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 더 불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초기를 앞으로의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고,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확립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그 이후의 가족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을 이성형\*이성형으로 인지할 때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또한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남편은 공격형\*공격형으로, 아내는 공격형\*회피형으로 인지할 때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부갈등시 바람직한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결혼준비교육이나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결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 부부의 상호작용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치료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부의 인지적 측면 및 상호작용패턴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고현선, 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권오실(1995). 부부간의 갈등정도와갈등관리방법과의 관계분석 -학동기 이친 자녀를 둔 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은신(1992). 결혼 초기 주부의 역할 갈등 및 갈등 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정숙(1999). 결혼초기 무자녀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말희(1990). 기혼 남 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이미영, 박혜인(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 갈등 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 이정은,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9.
- 이현주(1997). 부부의 자아분화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유리, 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 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해경, 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 통계청(2003). 혼인 이혼통계 결과.
- Bouchard, G., Lussier, Y., Wright, J., & Richer, C. (1998). Predictive validity of coping strategies on marital satisfactio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112-131.
- Carver, C. S., & Scheier, M. F. (1994). Situational coping and coping disposition in a stressful trans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84-195.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87). Cognitive processes and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ribution-efficac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06-1118.
- Fincham, F. D., Bradbury, T. N., & Scott, C. K. (1990). Cognition in marriage. In F. D. Fincham & T. N. Bradbury(Eds.), *The psychology of marriage* (pp.118-149). New York: Guilford.
- Fincham, F. D., Harold, G. T., & Gano-Phillips, S. (2000).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attributions and marital satisfaction: Direction of effects and role efficacy expect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267-285.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ottman, J. (1992).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Simon and Schuster.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Hindman, D. W. (2002). *Conflict Management and Dyadic Adjustment Among Married Couples*.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Fuller

- Theological Seminary.
- Kitzma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13.
- Kurdek, L. K.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1)*, 153-164.
- Miller, G. E., Dopp, J. M., Myers, H. F., Stevens, S. Y., & Fahey, J. L. (1999). Psychosocial predictors of natural killer cell mobilization during marital conflict. *Health Psychology, 18*, 262-271.
- Miller, P. C., Lefcourt, H. M., Holmes, J. G., Ware, E. E., & Saleh W. E. (1986). Marital locus of control and marit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61-169.
- Natarius, C., & Markman, H. (1993). We can work it out: making sense of marital conflict Putnam.
- Rusbult, C. E., Johnson, D. J., & Morrow, G. D. (1986). Impact of couple patterns of problem-solving on distress and nondistress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44-753.
- Schumm, W. R., Paff-G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M., Meens, L. D., & Bugaighis, M. A.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2004년 10월 18일 접수, 2005년 5월 18일 채택)